**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다음주일은 신동철 목사 송별예배로 드립니다.**

**ㆍ대림절 시작:** 12월 1일 주일

**ㆍ2019 새가족 환영 오찬:** 오늘 예배 후 Teestube 아래층

**ㆍBible12(성경개관) 4강:** 다음 주일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

**ㆍ예산기초회의:** 다음 주일 예배 후, 재정개정소위원들

**ㆍ예결산제직회:** 12월 1일 주일

**ㆍ예결산공동의회:** 12월 8일 주일

**ㆍ자치단체 총회:** 11월 중 각 단체들은 총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ㆍ2020 매일성경 신청:** 다음주일까지

**ㆍ입원:** Wolfgang Zwingelberg(Essen Uniklinik, mIMC 4층 437호)

**ㆍ생일:** 구소피, 배서연,안희숙, 박요셉, 김찬송, 손민주, 서희정, 허지은

**◆말씀일기 일정**

일/말라기1:1-14 월/말2:1-16 화/말2:17-3:15 수/말3:16-4:6

목/요한계시록1:1-8 금/계1:9-20 토/계2:1-7 일/계2:8-17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67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1월 17일** | **11월 24일** | **12월 1일** | **12월 8일** |
| **예배기도** | 강일구 | 백능현 | 우선화 | 박요셉 |
| **말씀일기** |  | 박상훈 | 정규선 | 이은지 |
| **안내위원** | 정기승, 예배부 | | 신형만, 예배부 | |
| **헌금위원** | 민명희, 박성호 | | 양귀남, 한정우 | |
| **애찬봉사** | 나라주일 | 밥상 여섯 | 밥상 일곱 | 밥상 하나 |

**36-47호 2019년 11월 17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14:27)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신동철 목사** HP. +41-77-816 5678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35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27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366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 강일구안수집사  손교훈 목사  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요한5:16-47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들리나요**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505장………………….……………  합심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 함 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말1장 '주의 이름'** ▶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했냐고 따진다(2).

하나님은 편파적이라 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2b-3),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확신도 열정도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6, 12).

제사장과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자신들이 언제 주를 더럽게 했느냐 하고(7),

눈 먼 것, 병든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는(8),

그마저도 번거롭다고 떠들어 댄다(13).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있지만(11)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주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인의 이름이 '개독'이 되어 버렸으니,

정말이지 피눈물 나는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문제였다.

사랑이 없으니 정성도 없고, 정성이 없으니 감동도 없다.

사랑하는 님을 지우려고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아,

마치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는 어느 대중가요.

그 정도의 사랑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만큼의 애정도 없으니, 감동도 역사도 없다.

있다면 오만과 편견, 분노의 역사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2a)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도 감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그 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 때,

주의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고 높임 받게 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